

주임신부: 김대하 (요한 사도)
본당회장: 권병학 (요한 사도)
TEL: (905) 545-3004
FAX: (905) 545-7895

성탄 시기

하느님의 영이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마태 3, 16)

미사 시간	
미 사	주일 11 시 (본당)
	주일 17 시 30 분 (공소)
평 일	매주(화) 20 시
	매주(수) 11 시
	매월 첫(목) 19 시
성모 신심 미사 십자가의 길	매월 첫(토) 11 시
성시간	매월 첫(목) 19 시 미사 중
성사 일정	
고해성사	미사 전, 후
견진성사	2 년에 1 회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주일
혼인성사	6 개월 전 면담
병자성사	병환 중/임종 전
교리 시간	
예비자 교리	
견진 교리	
신심 단체	
자비의 모후 Cu	매월 2 주 미사 후
샛별 Pr.	매주 주일 9 시 30 분
평화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 시 30 분
천상의 어머니 Pr.	매주 수요일 9 시 30 분
사도들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 시 30 분
사랑하을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8 시 30 분
바뇌 성모 기도회	매월 1,3 주(토) 10 시
울뜨레이	매월 1 주(목) 성시간 후



총 약정 목표액: \$110,000
실질 약정액: \$86,409, 적립금액(\$76,263)

본당 소식

◎ 전례 안내

- ▶ 1/11(일) 주님 세례 축일 미사 (본당 11:00, 공소 17:30)
- ▶ 평일 미사 없음 (신부님 휴가)
- ▶ 1/18(일) 연중 제 2 주일(일치주간)미사 (본당 11:00)

◎ 제병, 초 봉헌

올해 사용할 제병과 초 봉헌을 2/1까지 받습니다.
전례분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분과 공지사항

- 2026년 현금봉투를 안 찾아가신 분들은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현금 영수증이 발급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타 및 수정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재정분과장 하태성 베드로 형제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2025년도 재정보고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세요.

◎ 나의 수호 성인 이야기

오늘 수호성인 이야기는 <성녀 스콜라스티카>입니다.
다음주는 <성녀 아네스>입니다.
준비하신 영상파일은 전례분과장 이미란 아네스 자매님 또는
총무 김성수 베드로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구유 예물 봉헌 감사 편지

지난 성탄 구유 예물 봉헌처인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 남수단
선교지의 황 크리스티나 수녀님의 감사편지는 성당 카페 및
게시판에 있습니다.

단체소식

◎ 꾸리아 월례회의

오늘 미사 후 꾸리아 월례회의가 하상실에서 있습니다.

◎ 주일학교 개학

오늘부터 주일학교가 개학합니다.

<주일학교> 표시가 있는 자리는 학생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학생들을 위해 양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사단 회합

다음주(1/18 일) 미사 후 복사단 회합이 있습니다.

◎ 2026년 캐나다 한인 꾸르실리스따 쇄신 피정

일시: 2026년 2/6 (금) 오후 5 시 – 2/8 (일) 오후 3 시
장소: St. Francis Centre, 208501 Highway 9, Caledon
주제: 만남/참가비: \$320

신청마감: 1/25 신청서는 복도 테이블에 있습니다.
문의: 간사 박혜영 수산나

◎ 줌으로 하는 성서사십주간-신약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수녀님의 '가톨릭 성서 모임'
오전반: 수요일 10 시~11 시 45 분 (1 월 21 일 시작예정)
오후반: 목요일 20 시~21 시 45 분 (1 월 22 일 시작예정)
진도내용: 복음서, 서간, 묵시록
수강료: USD70, 교재: USD25, (배송비 별도)
신청마감: 1/11(오늘)
문의: 이상은 엘리사벳 289-933-0242

공소 소식

- ◎ 1/18(일) 공소미사 없음
- ◎ 1/25(일) 사목회의(미사 후 사목회장댁)
- ◎ 1 월 세례 축일자 1/5 에밀리아나 (송인순)

친교 식사 및 제대꽃

오늘 친교식사는 2 구역에서 '고기무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대꽃도 감사합니다.

1/18: 4 구역 2/1: 5 구역

구역 모임 소식

이달의 묵상 주제 (마태 3, 13-17)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방법'

- 1 구역 1/17(토) 대철실 11:00
- 3 구역 1/17(토) 친교실 12:00
- 4 구역 1/18(일) 친교실 13:00
- 6 구역 1/17(토) 민중환 스템파노 17:00
- 7 구역 1/10(토) 박신준 비오 17:00

새해를 맞이하며 바치는 기도

- 시작이요 마침이신 주 예수님,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 저희가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새해에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맑은 책임을 다하여
가정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 또한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께 바치오니
하느님의 영광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 주소서.
- 아멘.

삼종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임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름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나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우리들의 정성

지난 주 정성 (미사 참례자: 134 명)			
주일헌금	\$1,530	교무금	\$1,595
감사헌금	\$0	성전건립	\$0

감사합니다

도네이션-성모회 (황기영 마리아)

◎ 1 월 축일자 (14 명)

- | | | |
|-----------------------------|---------------|-----------------|
| 1/ 1 마리아(황기영, 신낙홍, 현혜경) | 1/ 5 시매온(한기종) | 1/13 레미지오 (유루이) |
| 1/17 안토니오(권이용) | 1/19 비아 (임연신) | |
| 1/20 세巴斯찬(신용우), 세바스티아노(김창욱) | 파비아노(이준환) | |
| 1/21 아네스(이유진, 김지현, 이미란) | 1/25 바오로(이종수) | |

전례봉사자

날짜	해설	복사	독서자	봉헌자
1/ 11	김성수 베드로	이준규 안드레아, 이지민 이사벨라	1 독서: 이인선 젬마 2 독서: 박규혜 카타리나	김한욱 에릭 채정희 올리비아
1/ 18	이은영 힐데가르트	이준서 요한, 이준우 바오로	1 독서: 김의수 안드레아 2 독서: 박혜영 수산나	이인선 젬마 박규혜 카타리나
1/25	임연신 비아	최다혜 플로라, 최다희 보나	1 독서: 이준우 바오로 2 독서: 최다인 안나	이준서 요한 김규리 라파엘라

하느님이 꾸신 꿈을 함께 꾸는 사람들

안형준 마르첼리노 신부
김해성당 주임

'주님 세례 축일'인 오늘은 예수님께서 요르단 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당신을 드러내신 공생활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장면은 특별히 인상적입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신원과 사명을 선포하신 말씀으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느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원래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세례를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것이나, 믿지 않을 것인가'하는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고 있는지, 주님 세례 축일을 맞아 우리의 세례에 대한 의미를 되새겼으면 합니다. 세례성사를 통해 죄와 마귀, 모든 미신과 허례허식을 끊어 버리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며, 우리는 하느님을 알지 못했던 과거의 '아무개'인 나는 죽고, 새롭게 태어나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 약속을 잘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그저 장식품을 지니듯이 세례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례명은 내가 천주교 신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파견된 소명대로 살라는 책임과 의무를 기억하게 해 주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말만 하거나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처럼 살고자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만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세례 때의 은총에 감사하며 예수님과 일치하는 삶, 그분을 본받는 삶, 그분의 사명을 실천하는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대 철 주 보

<http://cafe.daum.net/stpeteryu>

St. Peter Yu Catholic Church/ 6 Heath St. Hamilton ON L8H 3Y5



주님 세례 축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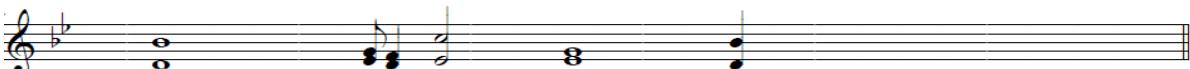
(2026. 1. 11.)

제 1 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42,1-4.6-7

화답송

시편 29(28),1 ㄱ과 2.3 ㄱㄷ과 4.3 ㄴ과 9 ㄷ-10 (◎ 11 ㄴ)



후렴.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
-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
- 영광의 하느님 천둥 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여!"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아 계시네. ◎

제 2 독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0,34-38

복음 환호송

마르 9,7 참조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알렐루야.

복 음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13-17

선포와 나눔의 해

2026 사목지침